

조약골 <아나키즘으로 떠나는 파란만장한 여행>

제 6강 일본 군국주의에 비수를 꽂다: 오스기 사카에

◆1교시 : 오스기 사카에 1

▲오스기 사카에의 가정 배경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개인 오스기 사카에가 어떤 활동을 펼쳤나를 볼 겁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아나키스트인 크로포트킨도 오스기 사카에와 비슷한 유년시절을 보냈죠. 둘 다 귀족이나 당시로서는 신분적으로 높은 곳에서 태어나 부모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귀족학교에 다니게 됐죠.



오스기 사카에도 군인집안의 장남으로 1885년 한창 일본이 군국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태어났죠. 일본의 군인교육, 한국에도 그대로 살아남았죠. 박정희가 그대로 배워서 해방이후에도 천황이라는 존재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와 똑같이 되었죠.

그래야 국민들이 섬기고 받들고, 가정에서 시작이 되도록 사회에서 바꿔놓은 거죠. 천황제,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든 것이 가장 무서운거죠. 천황을 없앤다는 것은 일본 일상생활의 말단까지 녹아있는 복종의 문화를 거부하는 의미로 천황제 반대를 주장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 행동으로 박열이나 가네코 후미코 같은 사람들도 천황제 반대를 했던 거고, 지금도 반대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시청, 천황제 반대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 천황제 반대 행동을 하는데, 경시청에서 나와서 탄압을 한다고 하죠.

패는 것은 다반사고 경찰서에 구금을 하는 거죠. 저희 들이 잡힌 아나키스트 친구들을 석방하라는 것도 보내고, 아직도 천황제의 문제점이 계속되는 거죠. 천황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는 거구요.

▲전후 일본 천황제의 유지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고치면서 쉽게 전쟁을 하고, 정규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을 추진하려 하고 있죠. 9조는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한다죠. 전범(戰犯)이기 때문에 1945년 패하면서 미국이 만든거죠. 지금도 군대는 있지요. 자위대죠. 국제법상 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할 수 있다. 전쟁을 한다는 건 다른 나라가 침범했을 때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위대는 교전권(交戰權)이 없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파병도 유사법제를 만들어 파병을 가능토록 했고, 9조도 폐지되면 완전 군대가 되죠.

천황제의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이 2차 대전 후 천황제가 폐지되어야하는데,

전쟁의 원인은 천황이죠. 군사적 책임을 물어서 천황제를 없애야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독일에서 최고 전쟁책임자 히틀러, 일본에서도 명백했죠. 군인들도 천황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쳐서 싸웠죠.

명령을 내린 것도 천황이죠. 없애지 못한 것, 미국에서 천황제가 없어진다면 일본 전후의 미국은 미국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동아시아 재편하려는 의도였는데, 일본이 미국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미국의 이해관계가 없어지니까, 천황제가 없어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거다, 어떻게 해야할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 미국이 내세운 허수아비로, 일본을 재편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천황은 두고 그 아래 총리까지 전범을 물어 사형을 시킨거죠. 토조 히데키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황의 명령을 받은거죠.

지금까지 민중의 입장에서 비극이 이어져 내려온거고, 일본 지배세력의 경우는 천황제가 없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두니까 미국에 감사하고 적극 협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미동맹의 미일동맹의 파트너로 내려온거죠.

▲오스기 사카에의 유년, 대학시절

천황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오스기 사카에의 경우 천황을 떠받드는 교육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군인유년학교에서 유년을 보냈죠. 선생들한테 체벌을 받고 당시 군대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죠. 아침부터 학생들 기숙사 생활하는데 조회시키고 규율, 군인 양성시키는 기관이었죠.

그 학생들이 일탈의 방법으로 동성애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당시 일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받아들이지 못했죠. 오스기 사카에는 학교를 퇴학당하고, 폭력이라는 것에 눈뜨게 된 계기, 어렸을 때부터 머리도 좋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자유를 염원하면서도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자기의 개인적 길을 건도록 만들었다고 하죠.

대학과정을 위해 도쿄로 오는데 문학 공부를 하는데, 유명한 러시아 문호들,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등의 책을 읽었다고 하죠. 오스기 사카에의 예술적인 자극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스기 사카에가 아나키스트라고 하는데 관심분야가 많아요. 엠마 골드만이나 다른 아나키스트의 경우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죠. 활동을 하면서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죠. 엠마 골드만은 드라마에 관련된 극본, 평론을 하고 오스기 사카에는 수필, 시를 썼죠.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했죠.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혁명가로 짐작할 수 있죠. 시를 쓰면서 연설도 하고, 살아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요.

▲크로포트킨

동아시아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크로포트킨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는 크로포트킨주의자라고 했고, 미국이나 남미에 영향을 끼친 ана키스트들을 꼽자면 크로포트킨이 유일하게 영향을 끼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의 문제도 그렇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 사상, 다윈의 진화론을 크로포트킨을 지리학을 공부하면서 시베리아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살펴본 것이 상호부조론인데, 중국은 호조론이라고 하죠.

자기는 호조주의자다,라고 했었고, 중국의 ана키스트들뿐아니라 사회주의 전체를 아울러 사람들이 호조주의를 받아들였죠. 중국의 공산당을 세우는 초기의 이론가들도 크로포트킨의 호조주의의 매력을 받아들였죠. 사람마다 크로포트킨의 매력이 달랐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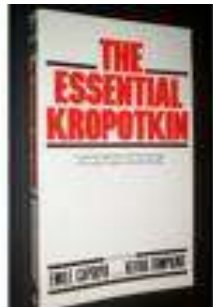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우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승열패, 잘난사람은 이기고 못난 사람은 진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것이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고, 제국주의나 그것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인식의 틀이 지금은 더 야만적인 생각이 되어서, 약육강식, 우승열패, 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죠. 동아시아의 호조주의자들, 크로포트킨의 사상이 생겼던 이유가 그런 거죠. 동물의 경우 약육강식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경우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 그것은 상호부조다.

크로포트킨의 경우 다윈과 달리 실제로 지리학자로 러시아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연구하니 까 약육강식이라는 질서가 올바르게 아니라고 본 거죠. 여러 동물들 사이에서 상호부조의 모습들을 크로포트킨은 실제로 목격했고, 과학자로 오스기 사카에도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2교시 : 오스기 사카에 2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수용



세상을 바꾼 상호부조론도 나왔는데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알려면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상호부조라는 새로운 원리, 20세기 초반에서 이런 사회 원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죠.

일본은 저만큼 강해졌는데, 한족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도,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약소민족이 될거다, 라는 민족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거구요. 시대적 상황이었죠.

일본이라는 제국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일본의 약육강식의 논리를 똑같이 사용하는게 맞는가. 크로포트킨은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제시한거죠. 크로포트킨의 사상에 의하면 다른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뿌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본거죠.

출발부터 다른 시스템부터 가자고 한거죠.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오스기 사카에도 받아들인거구요. 자연과학분야에 논증을 보여주었던 모습이 큰 감명이 있었죠. 자기도 상호부조주의자다, 선언하게 된거죠.

오스기 사카에가 ана키스트라고 선언하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ана키즘을 받아들이는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고토쿠 슈스이의 글들로 받았던 감명들,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나, 동아시아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야하는가의 고토구의 글들이 감동을 받았죠. 배타적 애국주의는 여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사람의 유일한 대안한 ана키즘이죠.

▲오스기 사카에의 ана키스트 선언

오스기 사카에의 경우 교회에도 다녔어요. 군인학교를 다니면서 유년시절 정신적, 영적 추구가 오스기 사카에에게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러일전쟁 발생과정에서 모든 일본 사회가 전쟁을 지지하고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오스기 사카에는 그걸 보면서 교회도 아니구나라는 자각을 했죠. 아나키즘에 투신하는 과정이 있었고 1904,1905년 사이에 아나키스트가 되었다고 하고, ‘근대사상’, ‘평민신문’, ‘노동운동’ 잡지들, 월간지를 내면서 1905년 무렵 ‘어쩌서 나는 아나키스트가 되었나’, 선언을 하면서 공개적 활동을 했어요. 전통이었죠. 유행하던 잡지에 글을 쓰고, 사상적 커밍아웃이 되겠죠.

감옥에 잡혀가고, 경찰로부터의 미행, 감시 때문에 자기 주변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죠. 감옥에 갈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돈, 여행경비를 위해 돈을 꾸러 주변을 다니죠. 오스기 사카에의 딸이 4명 있는데,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던, 천엔 정도가 필요했죠.

전세계 아나키스트들의 모임이 1923년 베를린에 열리죠. 1907년에 국제 아나키스트들의 대회 열리고, 이후로 국제 아나키스트들의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의 사회 상황, 1차 대전 발발로 열리지 못했죠. 각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한 규모가 큰 대회는 1907년 이후는 없었다고 할 수 있죠. 1923년에 베를린에서 큰 대회를 여니까 오스기 사카에가 가야겠다고 생각한거죠.

▲오스기 사카에의 일본탈출기

일본 탈출기라는 것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집에 감시와 미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스기 사카에의 경우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감시하고 있으니 밖에 나가더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얘기를 하라고 시키기도 했죠. 딸에게 아빠가 어디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프랑스로 밀출국하기 위해 상해로 가요, 도쿄근처에서 기차를 타고 항구도시로 가죠. 일본 경찰이 다 알고 있어서 해외로 못나가게 하죠. 다시 도시에서 배를 타고 상해로 출국했는데, 딸한테 시켰죠. 경찰이 나간 뒤에 없는 것 같으니까, 딸에게 물었죠. 아빠 있니? 응? 없니? 응? 있어, 없어? 응, 응, 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일주일 정도 후면 알게 되죠. 같이 다른 나라에서 여행하던 아나키스트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서양에 아나키스트들이 일본에 왔다가 추방된 적이 있어요. 다시 밀입국해서 일본 오스기 사카에 집에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밀입국, 밀출국이 감시는 있었겠지만 가능했겠죠. 경찰이 잡아가려하니 오스기 사카에를 그 사람을 탄 데로 피신시키고, 혼자 영어로 대화를 했다고 해요. 일본 탈출해서 베를린에 가려고 상해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빠리에서 메이 데이 1923년 집회 때, 참가를 하죠.

일본의 아나키스트의 상황이 이렇다고 하죠.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1923 5 1일 에스페란토로 연설했을 겁니다. 일본어 통역인도 없으니까요. 프랑스 경찰이 저 놈 누구야, 바로 잡아들이죠. 여권이 없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아니다. 추방명령을 내리고 두 달 후

일본으로 추방되죠.

▲관동대지진

다시 활동을 하려는데, 관동대지진, 수십만명이 죽고 다쳤죠. 오사카, 고베, 지진이 많이 나죠. 1923년에는 지진에 대비한 사회복구시설이 안되어 있었죠. 수십만 명이 죽고, 다쳤는데, 엄청난 사회혼란상이니까 일본이 들끓었죠. 불안해하고, 일본지배계급에서는 잠재위야할 필요가 있었죠.

조선인들이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약을 풀고 일본인들을 죽이고 다닌다고 일본 경찰에 의해 퍼트려지죠. 조선인들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경찰이 평소에 자기 말을 안듣는 조선인들, 불경(不敬)선인(鮮人)들을 예비검속이라는 이유로 잡아들이죠.

조선인뿐만 아니라 평소에 일본 정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오스기 사카에도 관동대지진 며칠 후 일본 헌병에 의해 납치를 해가죠. 그때 오스기 사카에의 부인, 여러 명인데, 자기 조카, 모두 납치해서 때려죽였답니다. 우물에서 버려졌다고 해요. 알려지지 않았죠. 의문의 죽음, 실종 이런 식으로 일본 사회에, 오스기 사카에가 유명하니까, 혼란상 이후 목숨을 잃었다.

어떻게 죽었는지 1970년대에 진상이 드러나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그때 39세인데, 일본에서도 군국주의의 광풍 때문에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아나키스트들은 전향을 하거나 전향은 천황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전향하지 않으면 사형시키겠다고 하죠.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전향한 사람은 천황이 있는 곳에 절을 하고, 단순히 종이에다가 날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자기가 행동을 해야 했던 상황이죠.

그런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가네코 후미코 경우 죽었고, 박열의 경우 감옥의 생활 20년인데, 12년인가 지난 후 1940년에 전향을 했죠. 관동대지진 이후 박열, 가네코 후미코도 갇히죠. 천황 암살을 하려했다는 이유를 들이대죠. 애네들이 어울리는 집안에 폭탄이 있다. 폭탄은 암살로 연결되고 그것은 대역사건으로 분류되고 그것은 사형이죠.

후미코나 박열은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일본의 천황의 자비로움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키죠. 후미코의 경우는 끝까지 저항했죠. 일본여성이 조선인과 어울린 것은 잘못 생각한 거지? 잘못했다고 하면 정상 참작후 석방시켜줄게. 말도 하지 말라. 후미코 경우도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자살인지 살해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알 수가 없죠.

◆3교시 : 오스기 사카에 3

▲검은색과 ана키스트

오스기 사카에 경우 일본 ана키즘을 이끌어가는 사람, 에스페란토도 많이 했고, 1910년 적기 사건이 있었는데, ана키스트들의 집회에 붉은 깃발을 내걸고, 우리는 혁명을 원한다고 하니 일본 경찰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죠.

당시 집회, 사상의 자유가 없죠. 소위 말하는 적기사건이고, 감옥 후 대역 사건의 화를 면하죠. 나오자마자 잡지도 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도 이끌고, 활동을 하죠. 일본에 와 있던 중국인 ана키스트들, 박열이나 흑우회, 검은 친구들의 모임, 에스페란토는 초록색의 별이죠.

아나키스트들의 집회를 하면 검은색 깃발을 흔들죠. 왜, 사회주의는 빨간색, 중국도 공산혁명 후 빨간색기를 채택했죠. 어느 순간 검은색을 썼는데, 채택이 되었죠. ана키스트들은 모든 색깔을 섞어놓은 거다.

하나의 색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섞어서 우리는 ана키스트들이다. 사회주의의 붉은색, 뒤를 합치든 검은색이죠. 어떤 차이가 없는거죠. 많이 갈라져있는 것을 넘어서려고 검은색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나라는 무슨 색이 나뉘져 있었는데, 민족적인 것을 반대해서 단순한 검은색을 썼다. 혹은 검은색은 변하지 않으므로 썼다는 말도 있고, 단순한 색이라라는 얘기도 있고, 1910, 20년대 일본이나 조선에서 흑(黑)자가 들어가는 모임은 ана키스트의 모임이었죠.

유난히 흑을 많이 썼죠. 흑우회, 흑우연맹, 흑도회, 검은 파도가 밀려온다. 유난히 검은색을 좋아했고요, ана키스트하면 검은색을 떠올리고, ана키스트들이 반세계들의 집회에 가면 온몸에 검은색을 입고 참가를 하죠.

차이를 느낄 수 없죠. 모두들 검은색을 입으면, 경찰이 판별할 수가 없어요. ана코생디칼

리즘의 경우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을 절충시킨거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 아나키즘을 섞어서 흑적기, 지금도 아나키스트들의 모임에 가면 깃발이 있다면, 그 안에 구호도 없는 검은 빛깔이 있으면 아나키스트들이라고 보면되고 반으로 나뉘어 검은색과 빨간색, 흑적기를 들고 있으면 그것은 아나키스트에 기반한 노동운동이라고 보면되요.

국기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한 국가의 국기가 아니라, 아나키스트를 보여주려면 깃발을 보여주는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왜 들어야 하는가. 당시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국(國) 자체가 없으니까, 국기가 없죠.

상징이나 표시로는 써클 에이(Circle A), 라고 하는, 흑기는 1920년대 있었는데 써클 에이는 1970부터 있었죠. 오스기 사카에 경우는 개인의 철저한 자유, 해방의 아나키스트의 기반이 되었고, 이 지점이 중국이나 조선의 아나키즘하고 달랐던 지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동아시아 지배하는 일원이었고, 그런 것에 반대를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조건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죠. 반제(反帝)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했고, 그래서 오스기 사카에가 조선이나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이 말하지 않았던 자유연애를 말하지 않았나 해요.

▲결혼 생활

결혼해서 아내와 살면서 아이들도 많이 낳았고, 결혼제도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연애를 주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엠마 골드만의 자유연애 자유사랑, 가족제도의 반대와 같은 맥락이었고, 당시 일본 1910이후가 되면 일본의 유명인사가 되죠.

1915년에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관계를 맺은 여인, 이치코라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치코가 질투심에 불타, 원래 부인과 헤어지길 바랬죠. 오스기 사카에게 가서 칼을 가지고 오스기 사카에를 죽이려고 했죠.

오스기 사카에가 부인과 같이 자고 있는데, 목에 이상한 느낌에 깨보니 피가 흐르고 있고 이치코가 도망가고 있었다. 오스기 사카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가만둬서는 안되겠다.해서 방에서 나와 쫓아가는데, 자기가 넘어지면서 잡았죠,

당시 1915년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데, 둘이 싸우고, 여성은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은 몰려가고, 내가 칼에 맞았다. 응급실로 데리고 가 달라고, 피를 쏟고 정신을 잃게 되고, 병원에 가보니 수술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 여성과는 끝나고 또 다른 여성과, 이토 노에라는 여성인데, 당시 일본에서 유명한 여성 예술가,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과도 부인처럼 살았고, 아이 딸 4과 아들 2이 있었고, 1910년부터 근대 사상, 노동운동 잡지를 내면서 삼각관계에 빠지기도 하고, 그 시기를 지나 1920년대 여행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하죠.

▲1920년대의 오스기 사카에의 ана키즘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최고봉이었다라고 추앙을 받았는데 1920년 이후가 되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볼셰비즘이 영향을 얻게 되는데 1900년대 초반에는 사회주의 ана키즘의 차이가 없었는데, 볼셰비즘이 퍼지면서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사람들이 직접 러시아에 가서 배워와요.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를요. 자신들이 두 번 세 번 직접 배우질 못하고 소개로 배웠던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니까 ана키스트와는 다른 길을 걷고, 동아시아에서 ана키즘이 볼셰비즘과 분리되죠.

1920년까지는 일본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공산당이 1922년 만들어지면서 오스기 사카에와는 다른 길을 가죠. 정치적으로 오스기 사카에의 경우 정당을 통한 운동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같은 부분이 우리와 맞지 않다고 한거죠. 일본 공산당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오스기 사카에도 자신이 믿었고 받아들였던, 1910년 내내 그것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해요. 받아들여야하는지 비판을 해야하는지, 잘 몰랐다고 하는데, 1920년대가 돼서 러시아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고 하죠.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쓰게 되고 ана키스트들은 무정부주의로 남게되죠. 사회주의 역시, 러시아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강한 국가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쏟으면서 ана키스트들은 힘을 잃어가게 되죠

1920년 이후 일본의 ана키스트들이 없어지죠. 일본의 경우 공산당이 들어서고 1930년대 되면 많이 없어지죠. 중국의 경우 1920년까지 초기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이대조, 최원배 등이 있죠. 중국의 신문화 운동, 5.4 운동을 이끌었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를 받았었는데, 그들은 1920년 지나면 이론적 성숙과 함께 오스기 사카에의 죽음과 더불어, 한 시기였던 것 같다.

초기 ана키즘이 동아시아에서 꽃을 피웠던 시기죠. 일본에서는 1910년대 오스기 사카에가 꽃을 피웠고 조선이나 중국은 1920년대 꽃을 피웠고, 1930 중반에 지기 시작하고, 그 모습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같이 보겠습니다.